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1월 15일(주일) 제1074호



2013년 장로장립 예배.

2015 장로장립 및 임직예배

장로장립예배 12월 5일, 임직예배 11월 28일
장로 31명, 권사 174명, 안수집사 339명 대상

2015년 장로장립 및 임직예배를 드린다. 장로장립예배는 12월 5일 오후 4시, 임직예배는 11월 28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드린다.

장로장립예배는 12월 5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에서 드린다. 올해

장로장립 대상자는 31명(예정)이다.

2015년 장로사관학교는 3월 13일 개강해 11월 6일 종강했다. 약 9개월 동안 피택장로들은 교회론과 목회철학, 바람직한 장로상, 러브소나타 교토 참석, 대표기도법, 치유와 회복, 타문화 선교, CGNTV 위성 선

교, 사역지 탐방, 성경 파노라마, 온누리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도전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훈련했다.

임직예배는 11월 28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올해 임직 대상자는 526명(예

정)이다. 권사 174명(명예권사 19명, 권사 168명), 안수집사 339명(남 125명, 여 214명)이다.

2015 임직자스쿨은 지난 9월 5일 개강했다. 9주 동안 예배, 개인영성 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독서보고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빙고는 11월 10일, 양재는 11월 14일 종강했다.

임직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불참할 경우 임직이 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는

정장(흰색셔츠), 여자는 바지 정장,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야 한다. 몸이 불편해 안수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은 따로 안수를 준다.

임직예배에 올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촌역 4번 출구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이 운행된다. 임직식 화비는 없고, 임직감사헌금을 봉헌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은혜 기억하고, 이웃과 사랑 나누는 날

오늘(15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매우 뜻 깊은 날이다.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함께 중요하고, 의미 있게 지키고 있는 절기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캠퍼스 및 공동체, 순, 대학청년부,

차세대별로 쌀과 과일 등의 헌물을 모집해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오늘 순별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쌀과 생필품을 나눠준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차세대 특순과 로비에 기도제목을 써서 붙일 수 있는 트리를 설치한다.

인천,성전 감사예배

오늘 저녁 7시, 송도 컨벤시아 2층 A홀

인천 온누리교회가 오늘(15일) '특별 추수감사절 예배 및 성전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늘 저녁 7시 송도 컨벤시아 2층 A홀에서 진행된다.

오늘 예배에서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24일 동안 준비한 '오픈 메시아(Open messiah)'를 연주한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

니라 타교회, 타캠퍼스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주회다. 연주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대작이다. 이날 예배는 저녁 6시 30분부터 새 성전 입장을 시작으로 서경남 목사의 말씀선포, 헨델의 메시아(지휘 김건주 성가사) 공연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 김미림 기자

공동의회 개최

일시: 11월 22일(주일) 3부예배 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온누리신문 기자 모집

분야: 취재기자
대상: 문서선교에 헌신한분
취재및 제작경력자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
종학력증명서, 기명기사
서류접수: one@onnuri.org
문의: 02-3215-3193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병마도, 시련도 꺾지 못한 이수연 집사의 중보기도 열정

햇수로 19년이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이수연 집사(한강공동체)는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2층에 있는 아론기도실과 홀기도실은 그녀에게 특별한 장소다. 지난 12일,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내게 “중보기도가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어느 날 병마(病魔)가 찾아왔다. 병명도 희귀하고, 별다른 치료법도 없는 진성다혈증(혈액암 일종)이었다. 적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병마와 싸웠다. 참 많이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이수연 집사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9월 중순이다. TIM기도회 취재를 할 때였다. TIM기도회는 TIM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중보기도하는 모임이다. 그곳에서 취재하는 도중 이지숙 팀장이 이수연 집사를 소개해줬다.

“이수연 집사님이야말로 기도와 기적의 증인이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투병생활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셨거든요”

지난 12일에도 이수연 집사는 병원에 가기 전 아론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하겠다며 교회에 들렀다. 그녀의 중보기도 열정이 정말 대단해보였다.

동생의 죽음과 머릿니가 준 충격

그녀가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이 집사는 동생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다. 큰 슬픔과 충격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이모가 교회로 초대했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부산에 살고 있던 이수연 집사는 이모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와서 치료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독실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은 아니었지만 미션스쿨에서 예배드리면서 성인이 되었다. 그러다 천주교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녀는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다. 어린 동생의 죽음을 겪었던 탓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금지옥엽, 애지중지했다.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학생들 사이에 머릿니가 유행하고 있으니 가정에서 관리를 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다른 엄마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 공문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이 죽은 나이와 당시 딸의 나이가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벌벌 떨며 애들을 키웠는데, 그 조그만 머릿니로부터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과 아이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불붙기 시작한 신앙생활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순장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했다. 새벽기도만으로는 부족했다. 순모임과 각종 기도모임, 예배에 참석했다. 새벽기도 하러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남편과 아이들

을 직장과 학교로 보내고, 다시 교회 나와 기도했다. 금요철야기도도 했다. 매일같이 그러고 다녔다.

“커다란 간식가방이나 노트북가방을 들고 매일같이 바쁘게 다니는 것을 보더니 경비아저씨가 사업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기도하러 교회 가는 게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1997년, 아론기도실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순장님과 더불어 젊은 엄마들을 모아 기도모임을 만들었다. 기도실에 웅기종기 모인 젊은 엄마들은 개인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려고 모였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온누리교회와 2000선교본부들을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단순한 기도모임이 아니라 기도공동체예요. 중보기도하면서 다들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병마와 시집살이 견디게 해 준 ‘중보기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던 이수연 집사에게 불행이 닥쳤다. 마흔이 되자마자 혈액암이 발병했다. 몸이 금방 피곤하고, 쉽게 지쳤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하고 별 생각 없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이었다.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진성다혈증이였다. 늘어난 적혈구로 인해 피가 진득해져서 혈관과 심장, 뇌관이 막히는 희귀병이었다. 별다른 수술이나 치료법이 없었다. 항암제를 투여받는 것이 유일한 치료였다. 그때부터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다.

“항암치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6년 정도 항암제를 먹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암치료를 중단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녀는 중보기도의 자리를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했다. 아픈 몸과 고된 시집살이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는 유일한 창구가 중보기도였기 때문이다.

“처음 병을 알았을 때 시댁이랑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시집살이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열심히 기도하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천주교 신자인 시어머니는 그녀가 감당하기에 힘들고 불편한 분이였다. 재력도 부족함이 없고, 아들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키워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였다.

“한번은 아침 9시 30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성당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성경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손님이니 머느리가 대접하라는 것이죠. 당시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편찮으셨는데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제가 했어요.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했죠. 집안분위기가 그랬어요. 무조건 머느리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틈만 나면 성당에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머니, 저는 교회 안다녔으면 벌써 죽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약을 끊고 잘 지내나 싶었는데 결국 지난해 사달이 났다. 목욕탕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피를 쏟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두 달 만에 퇴원했다. 그러다 올해 4월 또 쓰러졌다. 이번에는 심각했다. 약 40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었다. 한번은 치료받다 심장이 멎는 순간도 있었다. 위험한 순간, 그녀를 지켜준 것은 기도공동체의 중보기도였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어요. 중보자들이 울며불며 간절히 기도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 심장이 완전히 멈췄을 거예요”

상태가 심각했던지라 19년 가까이 지켜온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없었다. 몸을 추스르고 6개월만인 지난 9월 기도모임에 나왔고 그날 기자와 만난 것이다.

이수연 집사는 자신이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장례식장에 엄마 기도팀이 제일 많이 왔고, 제일 많이 위로해 줬어요. 할머니나 고모, 아빠 형제들이랑은 달랐어요. 엄마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엄마는 몸도 아픈데 왜 맨날 교회가요?”라고 말하던 꼬마가 어느덧 청년이 되어 “엄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라고 말한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보상이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인 것 같았다. 그녀는 이토록 축복된 기도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저는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수연 집사는 오늘도, 내일도, 또 다음날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일강단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목사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

역대상 28:20~21

“주님께 뜻이 열려 있고, 후퇴를 모르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21절).

1865년 6월 저희 고조할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쓴 글에도 기술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영국 남부에 있는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에서 글을 남기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4명의 사람을 주시는데 뜻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의 시작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선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약 6년 동안 중국을 섬겼습니다. 1860년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5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제발 좀 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가 영국 브라이튼에서 이틀을 쉰 적이 있습니다.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허드슨 테일러가 오래 전에 섬겼던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에 가서 교회를 찾기는 했는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술을 파는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교회가 다른 나라에서 세워졌지만 서구에 있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사들을 보냈던 나라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날 무렵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을 머금고, 150년 전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우리를 돌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구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기를 썼는데 그중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명 이상 되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중국의 중국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찾아가면 브라이튼의 해변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 해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을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나에게 오셨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를 발굴해 낼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내륙에도 복음전도자들을 보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방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선교지로 부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의 심령에 갈등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50여 년 전에 성령의 침투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침투해 들어와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기술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 24명을 중국을 위해서 준비해달라고 썼습니다. 만약 중국의 11곳의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2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22명인데 나머지 2명은 몽골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24명을 데리고 중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거룩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짓는 모든 일에 도울 준비가 돼 있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네 모든 명령을 따를 것이다’”(20~21절).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를 심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19절).

하나님은 21세기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해주심으로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세상을 네 가지 종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슬림들입니다. 약 15억 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나 태국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2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둘째, 중국인들입니다. 13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장 큰 부류 중 하나입니다. 셋째, 불교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에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20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많은 말들 중에 은혜로운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진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제각기 다른 기술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술을 주셨습니다.

21세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협력해서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기존의 선교 방법은 많은 나라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곧 뜻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어드리는 마음을 충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후퇴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도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뜻이 열려 있고, 능력을 사용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전문성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_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불신앙의 표현 의식적으로 좋은 것 인식하고, 모든 것 선물로 받아들여야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추수감사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 각박한 정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강동 온누리교회 최원준 목사가 감사의 의미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 편집자 주



최원준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범사에 감사, 주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

추수감사절은 잘 알려진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이듬해 10월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축제를 가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청교도들이 대풍작을 이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가져온 완두콩 씨앗은 여름에 다 타버렸고, 보리 농사도 실패였다. 수확이 괜찮았던 것은 옥수수뿐이었다. 게다가 유행병까지 돌았다. 미국으로 오면서 본국에서 진 빛은 산더미같이 불어나고 있었다. 곧 닥칠 겨울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힘들 것이 분명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더욱이 청교도들은 마지막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난

뒤가 아니라, 첫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점이 뜻깊다(서중석, ‘무의한 종의 감사’, <기독교사상> 1995년 11월, p249-50).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을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는 이 지엄한 권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할 때만 실천 가능하다. 빌립보서 4장 6-7절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한다. 누군가 말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다”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그 이유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이해력과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다. 자족이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바울은 비천한 상황이 와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며 풍부한 상황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빌 4:11-12). 핀들레이(G.G.Findlay)에 따르면 이런 자족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것(an independence of the world through dependence upon God)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상번제(常燔祭)’가 있다(민수기 28장, 29장). 아침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번제)란 뜻인데,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드려야 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상번제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뿌리가 된다(정중호, ‘구약의 절기와 제사에 나타난 감사’, <그말씀> 2014년 11월, p41).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안식일에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안식일이 되면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

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이다

반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의 표출이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원망’하는 시간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그 뿌리는 불신앙이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출 17:7).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사실 물 하나 주시지 못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나,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원망과 불평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본질적 모습이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마틴 루터는 “(타락한 천사)루시퍼는 타락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한바 있다. 감사하지 않음이 죄인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갈빈에 따르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중요한 예배의 마음가짐은 ‘겸손’과 ‘감사’와 ‘찬송’이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소요리 문답 제1번 문항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의 주장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21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왜냐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실 것이다. 하나는 Th.D.(Thank Him Daily 날마다 주님께 감사)라는 학위이고, 다른 하나는 Ph.D.(Praise Him Daily 날마다 주님을 찬양)이라는 학위다.

감사는 기도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표시

성도라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신앙에 소중한지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것 같다.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보여주는 양대 지표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다. “기도에 전념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기도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왜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무덤덤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감옥과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수도원은 깨어있는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삶에서 좋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생각한다는 뜻의 영어 Think와 감사하다는 뜻의 영어 Thank는 어원이 같다고 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내야 한다. 요즘 감사일기라는 것이 유행한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일기처럼 적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에 100가지를 쓴다고 한다. 놀려했어! 이것을 100 감사일기라고 한다. 유지미라는 분이 쓴 <100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준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 감사

믿음의 표현



추수감사절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다.

가 감사인 것이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지 어떻게 쥐어짜듯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내는 것이 감사인가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내 일상을 찬찬히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널려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100가지 감사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감사는 생각해내야 한다. 그러나 생각만 해서 안 되고 선택해야 한다. 누구나 반길 수 있는 객관적으로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헨리 누웨의 말을 들어보자. “감사는 원칙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수반한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불쾌해하거나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일지라도 나는 감사를 택할 수 있다. 불평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비난을 당해서 마음이 쓰라릴 때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그말씀:감사》 2009년 10월호, p82). 감사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노력해야 한다.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이 의지는 내 삶을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한다.

감사와 기적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감사는 놀랍게도 능력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준다.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2009년 한글날 특집으로 MBC에서 실시한 실험이 있다. 두 개의 유리병에 갓 지은 쌀밥을 넣는다. 그리고 한 쪽 병에는 “고맙습니다”와 같은 말만 한 달간 들려주고, 다른 병에는 “짜

증나”같은 원망과 불평, 미움과 같은 말만 한 달간 들려줬다. 한 달 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병에는 하얀 곰팡이 즉 누룩이 피었고, “짜증나”라는 말을 들은 병에는 거무튀튀한 색의 곰팡이가 피고 심한 악취가 났다. 단지 말만 들려줬을 뿐인데! 이 실험은 말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간의 말도 이렇듯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말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됐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이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 오천 명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기는커녕, 한두 사람이 겨우 먹을 만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궁핍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막 6:41). 여기서 축사는 식사 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를 뜻한다. 상상해보라. 양손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이것이 바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출발점이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난다.

둘째,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닮은 점이 많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 빵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서도 반복된다(막 6:41, 14:22 비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 기도는 통상적인 유대인의 식사기도를 따른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에 절대 순종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다.

셋째,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하셨던 모습은 기적의 백미(白眉)라 할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 11:41).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실 때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즉 죽음의 상황이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된 시체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셨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예수님이 드린 감사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41절)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셨다.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또 42절에 따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즉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하려 함이니이다”(요 11:42).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자.

은혜(grace)와 공짜(gratis)와 감사(gratitude)

얼마 전 미국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식사 전 기도를 할 경우 음식값을 15%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살렘에 위치한 Mary's Gourmet Diner라는 식당이다. 음식점 주인이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할인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 내게 있어서 접시에 담긴 모든 음식은 선물이다. 난 한 번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의 식당을 찾은 누군가가 식탁 위에서 이러한 감사함을 특별하게 여길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그렇다. 감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한 접시의 음식이 내게 이유를 가져다주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감사다.

은혜(grace)와 공짜(gratis)와 감사(gratitude)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은혜는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진다. 아니 어떤 때는 내 삶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때도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 앞에서는 눈물 나도록 감사하게 된다.

결국 은혜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다. 은혜를 줘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요, 은혜가 내 삶에 임해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지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경외심, 사랑, 기쁨, 감사와 같은 영적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감사나 기쁨 없는 믿음 생활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예수님을 믿어 행복하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따라가고 싶다.

기도의 열정은 속사람을 새롭게!

15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온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

15년 동안 방학도 없이 매주 기도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25인의 권사들이 있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이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권사들의 얼굴이 특별하다. 60대부터 90대까지 이르는 어르신들이라는 점과 2000년부터 시작해 15년째 한 번도 모임을 거른 적 없다는 것이 바로 그 특별함이다.

이 기도모임은 2000년에 시작되었다. 하용조 목사의 건강 회복과 교회를 위한 기도모임으로 문을 열었다. 지금은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부르짖고 있다. 한주도 빠짐없이 15년 동안이나 기도모임을 이어온 비결이 무엇일까. 신앙의 연륜이 지극한 권사들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간절할까.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15년간 이어온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

코리아들은 매일 새벽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목회자 자녀를 두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웃은 세탁기로,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지난달 29일, '성령'을 주제로 기도모임이 열렸다. 그 기도모임을 찾았는데 독특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웃은 세탁기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씻읍시다!”

김경자 권사가 만든 인사말이다. 김 권사는 2011년부터 서빙고공동체 대표권사를 맡으면서 서빙고공동체 중보기도 회장으로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또한 기도모임마다 매번 다른 선포문으로 기도모임을 이끌어간다. 김 권사의 이러한 노력은 기도모임이 부흥하는 윤희 역할을 했다.

김 권사에게 권사 기도모임이 이토록 활기찬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신체 나이를 뛰어 넘는 기도의 열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기도 열정은 나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화자 권사는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 초창기부터 참여했다. 초창기에 대표권사를 맡았었다. 기도모임의 초창기 멤버로 故유재원, 윤화자, 임창수, 신광숙, 권오연 권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현재는 김경자 권사가 맡았다. 2000년대 초반 이 기도모임을 시작하면서 많은 권사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기를 기도했는데 어느새 25명이 채워졌다. 윤 권사에게 이 기도모임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이 기도모임에 빠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간절한 기도제목이 응답받고, 기도의 지경까지 넓어지기 때문이지요. 무

엇보다 노년에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연 권사는 처음 이 기도모임에 왔을 때에는 나이가 가장 젊었다. 그로부터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녀는 그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했다.

“15년 동안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의 틈을 노렸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권사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옆에서 차복자 권사도 한 마디 거들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크리스천의 의무이고, 삶입니다. 앞으로도 중보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이 기도모임을 섬길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에 참석자들은 나이는 많지만 누구보다 젊고, 활기차다. 청년들 보다 감각이 높고, 역동적이라고 자부한다. 패기가 넘치고 거침없다.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 참석자들은 60대부터 9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이다. 2000년 3월 초 3명의 권사들이 시작한 기도모임이 지금은 10배로 늘어났다. 이 기도모임에는 미스코리아 권사 3인방도 있다. 노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스코리아들이다.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의 미스코리아 진은 최순옥 권사(89세), 선은 차복자 권사(87세), 미는 박세숙 권사(84세)다. 미스



권사칼럼 김경자 권사(서빙고 공동체)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은 2000년 시작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빙고공동체는 권사님들의 연세가 많다보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다. 마음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들은 매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빠지지 않는다. 기도의 열정이 대단하다. 그들의 기도열정은 청년과 같다.

서빙고공동체 기도모임이 15년 간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권사님들의 못말리는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온누리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Acts29 비전에 깊이 공감하고,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모임을 이어올 수 있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몸

소 체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권사님들 간에 강력한 결속력이 생겼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깊어졌다. 밝고, 재미있는 권사님들과 사랑 넘치는 분위기도 한몫했다.

하용조 목사가 선포한 Acts29의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다. 교회 창립 30주년에 이준환 담임목사님이 새롭게 선포하신 ‘예수바보행진’ 비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전이다. 그 비전이 잘 이뤄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며, 사랑 넘치는 가족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요즘은 가족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목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난다. 이 기도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있다. 권사님들이 몸이 아파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 기도모임에는 자랑거리가 있다. 바로 미스코리아들이다. 진은 최순옥 권사, 선은 차복자 권사, 미는 박세숙 권사다. 우리는 그들을 ‘진선미 권사’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아휴~ 창피해라! 망신스러워라~”하시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다. 은근히 좋아하신다.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 세 분 모두 목회자 자녀를 두었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같은 아파트의 한 동에 살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다. 존경스러

운 세 분의 권사님이 우리 기도모임에 계시다는 것이 영광이자 자랑이다. 우리 공동체를 사계절로 표현한다면 나는 봄이라고 하고 싶다. 봄은 설렘을 상징한다. 우리의 신체나이를 계절로 표현하면 가을이겠지만 나는 봄이라고 부르고 싶다. 농부는 봄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린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이 맺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차가운 겨울을 밀어내고, 생명력을 전파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빙고공동체 권사 기도모임이 온누리교회에 작은 기도의 불씨가 되어 많은 공동체에 생명력을 전달하기를 소망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황홀하고, 전율 흐르고, 눈물 쏟아지고

온사랑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내가 매일 기쁘게’

온사랑합창단이 수놓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공연장을 수놓았다. 황홀했다. 듣는 내내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온사랑합창단의 연주에는 복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장애가 더 아름다운 연주를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온사랑합창단 어머니들의 찬양은 눈물샘을 자극했다. 울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은 지난 13일 온사랑합창단 제3회 연주회에서 보고, 느낀 감동들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온사랑합창단(JOY, LOVE 팀)이 '콤바야'를 찬양하고 있다.

지난 13일, 여기는 CTS 아트홀. 온사랑합창단이 ‘내가 매일 기쁘게’를 주제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이날 연주회에서 온사랑합창단은 콤바야, 축복하노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등을 연주했다. 어머니 합창단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와 여호와 이레를 찬양했다.

온사랑합창단은 35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합창단이다. JOY, LOVE, GRACE라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6월 교사 4명과 12명의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시작했다. 어머니 합창단은 황화자 권사가 그들에게 합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창단하게 됐다.

온사랑합창단원이 된 발달장애인들은 처음에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신만의 음정과 박자로 소리를 냈다. 화음 연습도 어려웠다. 타인

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이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성장하게 된 과정은 눈물 없이 설명할 수 없다.

18개월 동안 이어진 고된 훈련으로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다. 처음 테스트를 자주 했고,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 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하나씩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갔다. 소그룹으로 연습하고, 다시 대그룹으로 모여 연습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자신만 알던 발달장애인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동체 훈련이 온사랑합창단을 만

들어 낸 것이다.

온사랑합창단에게는 두 가지 비전이 있다. 하나는 찬양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면서 이 비전을 품게 됐다. 장애인인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전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함께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장애를 이겨내는 것이 비전이다. 그러나 부모와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하면서 공동체성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다.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훈련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온사랑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박소현 교사는 “발달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변화가 느리고, 혼자 장애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온사랑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그들에게 공동체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있다”고 말했다.

궁금한 창조 과학이야기 1. 진화론 VS 창조론



/ 이은일 장로
(창조과학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인류의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배운다. 멸종한 원숭이 뼈에 불과한 화석이 인류의 조상으로 둔갑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진화론만이 인류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의 조상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한다. 반면, 교회에서는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라고 가르친다. 진화론을 배운 청소년이 목사님에게 물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어떤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라고 가르치면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수능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진화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성경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걱정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대신 진화를 가르치는 거짓된 과학에

침묵으로 동조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경말씀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주장은 진리와 거짓을 조화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진화는 전혀 과학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를 증명할 어떤 화석도 존재하지 않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유전적 변화도 생명체에서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유전정보 설계도를 갖고 있다. 생명의 설계도가 원숭이로 변화된다는 것은 만화 같은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담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 첫 번째 사람이다. 크리스천이거나 아니거나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은 한 쌍의 부부로부터 출발한다. 한 쌍의 부부는 바로 아담과 하와이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도 ‘인류는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성경의 아담과 하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 쌍의 부부로부터 출발한 것은 성경적일 뿐 아니라, 과학적임을 알아야

약 400만 년 전



약 180만 년 전



약 20만 년 전



약 4~3만 년 전



(베이징인, 자와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한다. 한 쌍의 부부로부터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종이 생겼을까? 진화론자들은 햇빛의 세기에 따라 피부색이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햇빛에 의한 피부색의 변화는 유전될 수 없다. 사람의 피부색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의 어떤 부부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백인, 다른 아이는 흑인을 낳았다.

최초의 인류 아담의 존재가 역사적이며,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청년들

선교 소식통 ‘하늘공동체’와 노방전도 ‘SNS공동체’

청년, 선교와 전도를 노래하다

대학청년부 하늘공동체는 선교의 주역이다.故 하용조 목사가 “청년의 시기에 인생의 십분의 일을 선교지에 드리자”고 선포하자 하늘공동체 소속 청년 1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들은 열방으로 나아가 발로 뛰면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렸다. 여기 선교의 주역이 또 있다. 이번에는 국내 선교다. 고속버스터미널, 용산역 등지에서 노방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SNS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SNS공동체는 중보기도와 탈북자 섬김에도 여념이 없다. 청년들의 선교이야기를 담았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하늘을 품으면, 선교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을 품는 것은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공동체하면 가장 먼저 선교가 떠오른다. 하늘공동체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중에서 ‘FA(Frontier Agency:전방개척선교사역) 9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 N국에 7명, I국에 2명을 파송했다.

TP(Turning Point)선교사 한명도 일본에 파송했다. 하늘공동체 소속 청년 10명이 실시간으로 선교지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청년부에서 하늘공동체는 선교지 소식통으로 불리고 있다.

선교지 소식 듣고 기도 이어져

선교지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대략 이렇다. N국에 파송된 단기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에는 선교지 정세가 상세히 적혀있다.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혼란스

배반주와 특순, 집회,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고 있다. 우리는 다음 날 주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CGNTV로 예배드리고 있다. 언어훈련을 마치면 관계전도를 나간다.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탐방하고, 전도를 한다.”

선교지에서 발 빠르게 전해오는 생생한 소식은 청년들에게 적잖은 도전과 자극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자극은 선교사를 낳고 또 낳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예수 전하는 동역자가 되고 싶어서

하늘공동체는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매월 셋째 주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FA팀과 TP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늘공동체 주보에는 ‘선교지에서 보내는 편지’란이 있다. 그곳에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도제

SNS공동체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

매주 토요일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 SNS공동체 지체들이 노방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청년들이 노방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SNS공동체 전도팀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노방전도에 자신감이 넘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도현장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용산역 광장에 노방전도를 갔을 때에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그 뒤로 장소를 고속버스터미널로 옮겼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들이 노방전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한 장의 전도지와 사영리가 전부다.

서유진 자매는 지난해 SNS공동체 선교 MC로 섬겼다. 그녀도 처음에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

나 멈추지 않는 중보기도 모임 아닐까. SNS공동체는 매주 토요일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매주일 2시간 예배를 위해 토요일과 주일예배 시작 2시간부터 중보기도에 집중한다. 이것이 SNS공동체 부흥의 원동력이다.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예배를 위한 마음가짐을 바로하기 위해서다. 또한 육신의 아픔이나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SNS공동체의 기도행전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중보기도와 탈북자 사역이 원동력

남궁성 자매는 “SNS공동체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고, 기도자라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N국에 파송된 하늘공동체 FA 9기.



매주 토요일 SNS 중보기도 모임.

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매 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견디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한다. 선교지에서 보내는 하루에 대해서도 적어 보냈다.

“선교지에서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새벽 여섯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언어 공부, 성경공부를 반복한다. 환경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강도 높은 언어 훈련과 실습을 매일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우리가 언어훈련을 고되게 받는 이유는 발 빠른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선교지에서는 주일날 풍경도 다르다. N국은 토요일이 주일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

목과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알린다. 하늘공동체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예수 전하는 동역자가 되고 싶어서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향초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판매한 수익금을 선교 헌금으로 봉헌할 예정이다. 하늘공동체 선교팀은 “향초에는 선교지에 복음의 불이 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4880-8038

(하늘공동체 선교MC)

선교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2-652-359227 김지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희선 자매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예수를 만났다.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복음은 제 자신이 완전히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될 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SNS공동체는 2년 반 만에 10배나 성장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비가 오나 눈이 오

탈북자 사역에도 열심이다. 지난해 이맘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탈북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란 청년들이 마음을 모았다.

정희선 자매는 한 달에 한 번 탈북자 사역 기도모임에 참석한다. 그녀는 탈북자 사역을 하러갈 때마다 오히려 섬김을 받고 돌아온다”고 고백했다. 탈북자들의 고백을 들으면 자연스레 자신의 삶도 점검하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SNS공동체는 노방전도, 중보기도, 탈북자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들이 발걸이 닿는 곳마다 그 육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2)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몇 년 전부터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동유럽을 찾아가는 한국 여행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체코 프라하는 동유럽 여행의 출발지로서,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라하 여행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골목길 여행이다. 울타운 광장을 중심으로 얹히고설켜 있는 골목길을 다녔다는 것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풍스러운 길바닥과 건물들이 무척 인상적이다. 둘째는 저녁마다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음악회를 가는 것이다. 광장 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 셋째는 트램(노면전차)을 타고 시내 및 블타바 강가를 여행하는 것이다. 시외에 속소를 정하고 트램을 타고 관광지를 오가는 것도 방법이다. 트램은 단순히 대중교통이 아니다. 여행객들에게는 일종의 관광열차가 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와 강가의 풍경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드보르작(체코 작곡가. 대표작 ‘유모레스크’, 교향곡 9번 ‘신세계’)과 스메타나(체코 작곡가. 대표작 ‘나의 조국’) 박물관을,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카프카(실존주의 문학가. 대표작 ‘변신’) 박물관을 찾아가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프라하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흔적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프라하는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여 년 전에 이미 교회개혁을 시도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얀 후스(Jan Hus)는 가톨릭교회 사제이며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기도 했다. 그는 영국 유학 중 위클리프로부터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한다’는 영향을 받았다. 면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해왔던 그는 “예배는 모국어로 드려야 한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회중들도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 교회는 청빈해야 한다. 사제들의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 회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예배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성찬식은 예수님의 당부와는 달리 회중에게 떡만 주었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었다. 그래서 후스는 성경대로 성찬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교회의 부패와 사제들의 타락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후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1414년 10월, 후스는 스위스 콘스탄츠에서 열린 종교회의에 참석하도록 소환을 받았다. 개혁신앙을 변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전 보장의 약속을 어기고 그를 체포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는 한마

루터보다 100년 앞선 종교개혁자 ‘얀 후스(Jan Hus)’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에 위치한 얀후스 동상.

디 변론도 해보지 못한 채 이단으로 정죄 받고 3개월 동안의 호된 옥고를 치렀다.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죽기 직전에 “지금온 당신들이 거위를 제거할 수 있지만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위’였다” 앞으로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마틴 루터를 의미)는 결코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개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을 남기고 순교를 당했다.

“진실한 크리스천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진리가 너희를 죄와 악마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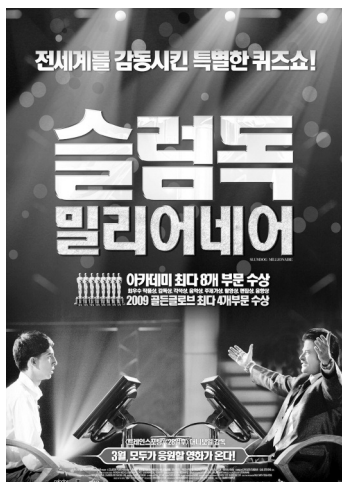
후스의 예언대로 100년 뒤 마틴 루터가 등장해 교회개혁을 성공하였다.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교회개혁이 완성되었다. 그의 죽음은 경건주의의 모태가 되는 형제교회(Brethren church)를 태동하게 하였다. 신앙의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성경에 근거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제도와 전통과 관습보다 항상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신앙의 개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대하고, 기념하며 개혁신앙의 흔적과 의미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동유럽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점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김종호 전도사(서빙고 유치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빈민가 출신 18세 고아 자매향이다. 그가 거액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 참가했다. 그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 없고, 콜센터에서 차 심부름을 하는 청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퀴즈쇼에 참가한 그를 무

시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퀴즈쇼 최종라운드에 진출했다. 퀴즈쇼 진행자는 그가 퀴즈를 다 맞는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경찰은 그를 사기죄로 체포했다. 누구나 알만한 쉬운 문제는 풀지 못하고, 찬스를 사용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는 쉽게 해결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현재(퀴즈쇼)와 과거 이야기(빈민가)를 교차하며 해답을 알려준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 가듯 말이다. 왜 그가 정답을 맞힐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퀴즈쇼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드라마와 같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주인공의 능력과 재치로 위기를 넘기는 것과는 다르다. 자매향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그것은 지식이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어릴 적 겪었

던 시간들이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의 정답을 알려준 열쇠가 됐다.

자매향이 정답을 말한 순간마다 그의 기억을 스쳐간 것은 어두운 과거였다. 누군가에게 쫓기며 보게 된 사물들이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그가 맞춘 퀴즈의 정답이었다. 그의 경험과 깨달음이 누구도 맞힐 수 없는 문제의 정답이었다. 그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극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퀴즈의 정답들은 자매향이 겪은 삶이었다. 모든 순간이 각각의 의미가 있었다. 이 영화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한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어려운 순간을 되돌아볼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쁨의 시간만 기억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역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추수감사절이다. 한해의 수확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다.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퀴즈쇼의 주인공이 자신의 지식이 아닌 삶으로 우승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인생은 손에 쥐어진 주사위가 아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한다.



CGNTV 직원들이 드림온콘서트에서 특순을 선보이고 있다.

CGNTV후원 위한 드림온콘서트

278명 참석 ... 비전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후원 동참

‘2015 CGNTV후원을 위한 드림 온콘서트’가 지난 12일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렸다. CGNTV운영위원과 후원자 등 278명이 참석했다.

드림온콘서트는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CGNTV프로그램 출연자 특순, 클래식 연주 및 간증, 글로벌 선교 이야기,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의 후원약정 순으로 진행됐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광고 없이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CGNTV가 170여 개국에서 방송될 정도로 세계적인 선교복음 방송으로 거듭난 것은 모두 후원자들 덕분”이라고 감사인사를 했다.

이재훈 목사는 “CGNTV를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는

것”이라며 “후원자들 모두가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선래 장로(가정사역공동체)는 “CGNTV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간증



10배, 100배 넘치는 축복

/ 오미희 집사(방송인, CGNTV 후원자)

몇 년 전, CGNTV 후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재정적 상황이 좋지 못한 때였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터라 후원하는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었다. 얼른 이 자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상이 흘러나왔다. 선교사 자녀들의 인터뷰였다. 부모 따라 외진 곳으로 간 그들은 선교지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외롭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CGNTV를 보면서 위안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 영상을 보고 CGNTV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받은 것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다. CGNTV를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비록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흔쾌히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CGNTV에서 받은 출연료만큼 후원하겠다고 약

정서에 기입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기쁘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현실로 돌아오니 지난밤 약정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돈도 없는데 뭣하러 후원을 하겠다고 했나 싶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심정을 심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험에 든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고 후원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 1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했다.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후회한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수능 종일 기도회’ 열려

수험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 12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다.

지난 12일 차세대사역본부가 ‘2016 학년도 수능 종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오전 8시40분부터 시작되었다.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시 40:1)는 말씀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 목사, 이상준 목사, 안광국 목사, 박종길 목사, 최원준 목사가 설교했다. 500

여 명이 참석해 수험생들을 위해 부르짖었다. 부모는 물론이고 친지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한걸음 한걸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면서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은영 성도는 “시험장에 있을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라며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양재여성사역 전도집회

‘가장 아름다운 선물’

서빙고는 11월 18일

양재 여성사역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제로 개최한 전도집회 참가자 27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22명이 예수와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11일 양재 여성사역이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수요일예배에 감하중 장로를 초청해 메시지를 들었다. 2부 행사에서는 지난해 여성사역 전도집회에서 결신한 최기선 자매의 간증, 유영순 목사의 설교, 결신서 작성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날 수요일예배에는 530명이 참석했고, 2부 행사에는 요청자 60명, 전도대상자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교육을 받고 다음 달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서빙고 여성사역에서도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11월 18일 오전 10시30분 서빙고 본당에서 드리는 수요일예배에서 ‘이야기가 있는 가을 콘서트’를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인 이지희가 사회를 보고 조호영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예정이다.

iWe+ 형제 모집

온누리교회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에서 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1970년생부터 1976년생까지 형제가 대상이다. 11월 22일까지 이메일(iweonnuri4u@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자매 참가자는 추후에 모집할 예정이다.

iWe+Plus는 남녀 각각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나이가 많아 결혼이나 이성교제에 자신감을 잃고 있는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일대일 제자양육 30 페스티벌’ 종료

일대일의 역사 돌아보고, 향후 30년 내다봐

지난 7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30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 페스티벌은 일대일 제자양육의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30년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대외사역의 발전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일대일 제자양육 30 페스티벌에는 일대일사역팀, 일대일 양

육자, 외부초청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예배를 시작으로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패널토론회, 대외사역 공유회, 일대일 양육자 대회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패널토론회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의 패러다임, 차세대와 대학청년부의 일대일 제자양육, 대외사역과 선교에서의 일대일 제자양육 등에 대해 논의가 펼쳐졌다.

양재 유년 3부, NGO 더멋진세상 후원

‘나눔 가족 걷기 대회’서 적립한 21만원 전달

양재 유년3부가 ‘나눔 가족 걷기 대회’에 참가해 적립한 21만원을 NGO 더멋진세상에 기부했다.

지난달 31일 양재 유년 3부가 나눔 가족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눔 걷기 대회는 양재권 근처 35km를 걸으면서 구간별 포인트를 적립해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는 행사였다. 100

여 명이 참석했다. 양재 유년3부가 적립해 기부한 금액은 세네갈 본나라 마을 케르발라 초등학교에 학용품 기증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교사는 이날 행사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제1074호 | 2015년 11월 15일(주일)

■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 수상작



주어진 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 장아름(수지 기쁨의 교회)

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열여덟 살 때부터 시작한 음악이 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좋은 음악학교에 입학했고, 어린 나이에 공연과 음악작업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노래를 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음악은 내 전부였다. 하나님보다 음악이 첫 번째였을지도 모르겠다.

2013년 어느 날 내게 갑자기 시련이 찾아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말을 해도, 노래를 해도 목이 아팠다.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삶을 멈추어 놓았다.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가 정확한 병명을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려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통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직업이자 내 삶의 전부라 여겼던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노래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고 그만큼 슬펐다.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잘못인가요? 주의 고난일까요? 사탄의 시험인가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치유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래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로부터 1년 정도를 더 쉬어야만 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그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떠올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

나서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주의 뜻에 따라 찬양과 음악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 주님은 나의 노래만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통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더 없는 평화가 마음에 깃들었다.

누군가의 간증처럼 거짓말같이 병이 낫고 그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식의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정말 귀한 은혜의 과정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춰 세우시고, 내 어깨를 붙잡아 돌리셔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다. 그리고 갈 길을 돌려 좁은 길이지만 주를 따르는 길로 나의 눈을 돌리셨다.

목소리는 여전히 이전 같지 않지만 주어진 이 길 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를 사랑하시고, 한 없이 돌보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음악적 풍요를 누릴 때보다 내 삶이 평안하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 모든 삶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 청년의 신앙간증



삼성교회에서 만난 아이들

/ 윤영은 자매(하늘공동체)

나에게 교회생활은 늘 도전을 준다.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소망이 가득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공동체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Acts29 Movement’라는 사역소개 광고였다.

“이왕이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섬겨보자.”

마음먹고 ‘Acts29 Movement’ 사역 신청서를 작성했다. 내가 간 곳은 신림동에 있는 삼성교회였다. 이곳은 시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들을 섬기는 교회다.

나는 그곳에서 아동사역을 도왔다. 나에게도 지적장애가 있는 언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삼성교회에는 시각장애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다. 성도 중 40%는 시각장애인, 60%는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회다.

다른 교회와 달리 교회에 ‘점자성경’도 비치되어 있다. 성도들의 연령은 40~60대가 대부분이다. 차세대 사역은 달리 없었는데 올해 하늘공동체와 연결되면서 삼성교회에 처음으로 아동부서가 신설됐다. 3명으로 시작한 이 사역의 팀원도 10명으로 늘었다.

내가 처음 삼성교회를 방문한 날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다. 아이들과 친근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무도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행동과 언어가 다소 거칠게 느껴졌다. 그 아이들의 사연을 들으니 이해가 되기도, 긍휼한 마음도 생겼다.

아동부 첫 예배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난생 처음 성경공부와 공과공부를 해 본 아이들이 낯설었던 모양이다.

교회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낯설게 느껴진 것 같다. 한 달 남짓 지나고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느 새 아이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했다. 장난도 치고, 속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도 있었다.

최근에는 온누리교회의 지원으로 삼성교회 아동부실에 피아노가 생겼다. 아이들에게 성경책도 선물하게 됐다. 나는 이 아이들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 42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당신을 사랑합니다”

/ 김도환, 길윤희 부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왕하 20:5).

42기 젊은부부학교 초대 글에 쓰여 있는 말씀을 보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부부가 되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컸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젊은부부학교 초대 글을 읽는 순간 그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모두 듣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젊은부부학교 첫 번째 숙제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적는 것이었다. 나에게 너무나 힘든 숙제였다. 나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시댁과의 갈등, 남편에 대한 미움들이 스멀스멀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 힘든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남편을 대해왔다. 남편의 사랑 방식을 몰랐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자 숙제를 할 수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을 두 번째 시간에 가진 세족식에서 표현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동안 막말하고, 상처주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해왔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기 전 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그런 나에게 젊은부부학교는 나 자신과 남편과 어긋났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와 가정을 다시 꿈꾸게 해준 감사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편지를 쓰면서 남편에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연애와 결혼생활 합쳐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참 오래 걸렸다. 이제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우고, 깨달은 대로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같은 꿈을 꿀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 되는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내 가슴이 벅차다.

정말 감사드린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부부라는 이름으로 남편과 함께해서 더욱 감사하다. 늘 긍정의 힘으로 조원들을 이끌어주신 조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아낌없이 섬겨주신 젊은부부학교 모든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기도한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낮게 해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준 남편 김도환씨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유아세례간증



믿음의 가정을 이룩할 것이다

/ 아이: 김지아, 부: 김현구, 모: 서유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삶이 기억나지 않는다. 아주 어린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들을 떠올려 봐도 그 기억은 항상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강원도에 산 적이 있다. 부모님과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발이 푹푹 빠지면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난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매주 주일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다. 주일학교를 다니고, 주일학교가 끝난 뒤에는 교회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았다.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는 항상 나의 삶과 함께 있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바쳐야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수련회를 간 적이 있다. 당시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정상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너무 무서워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

렸다.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산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눈을 감고 산길을 걸었다. 눈을 감은 채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경험이 정말 신기하고 강렬했다. 그 순간이 내 신앙생활 중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후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믿음을 이제 우리 부부가 물려받고 싶다. 딸 지아가 평생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룩할 것이다. 이번 유아세례가 지아와 우리 부부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백승웅 장로(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를 위한 기도

천지를 다스리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거두어들이고,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Acts29 비전빌리지로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 80명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아들딸로 삼아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만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은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고, 귀한 청지기로 쓰임 받았던故 하용조 목사님의 유업과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생시에 인자하시고, 아가처럼 순전하셨던 하 목사님의 웃음과 몸짓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부드러운 손길을 덥석 잡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직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와 주일까지 선교에 전념했던 하 목사님의 비전과 열정으로 1985년 열두 개 정으로 시작했던 온누리교회가 30년 만에 7만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선도해 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귀했던 묵회 철학을 이어 받아 온누리교회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을 세상과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 사망과 부활의 역사를 담담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을 우리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만민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신 어르신들 모두가 사도행전 29장과 예수바보행전을 위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의 용사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가, 온누리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차세대와 후손들을 위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 받고,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르신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다 싸워 가도록 지혜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시고,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 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니어 아카데미는 60세 이상의 성도들을 위한 영성 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배, 세미나 뿐만 아니라 악기, 운동, 댄스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양재(02-570-7349)



권사칼럼 김덕현 권사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1981년 직장동료의 인도로 교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성경공부 모임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믿음생활이 시작되었다. 교회에서 성가대와 교사, 구역봉사자로 순종했다. 1989년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펴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것만 잘 배우면 누구에게든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대감이 생겼다.

훈련을 마치고 이웃에 사는 분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소개하며 만나자고 했다. 용기를 내서 전도를 했다. 교회에서 연결해준 동반자와 16주 과정을 마치기도 했다.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일대일 제자양육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였다.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내가 큐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큐티하라고 할 것이며,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신이 못마땅했다. 준비 없이 동반자를 만날 때는 16주가 언제 끝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반자와 헤어지고 돌아올 때면 부끄러웠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일대일 제자양육은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가르친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어느 샌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 모든 것이 힘들었다.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했다. 그러자 두려움과 낙심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반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때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 자연스럽게 큐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깊어진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하다. 예기치 않은 만남인데도 공통점이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 중에 만나는 감동과 깊은 나눔은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계속 하는것은 양육의 달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그 삶을 동반자에게 소개하고 나누려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는 기회이 기도 하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영적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늘 부족하기에 먼저 주님과 의 일대일로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에세이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아치요 온누리교회)

진짜 희망 예수 그리스도

나는 11월 한 달 동안 ‘일본에서의 신앙계승’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신앙계승은 단순히 일본교회만이 품고 있는 고민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년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한국도 일본도 생활은 풍족해졌다.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옛날보다 편리해졌고, 환경도 살기 좋게 변해가고 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끊고 있다. 왜 그럴까.

아치요는 동경의 베드타운 성격을 지닌 위성도시지만 예전에는 시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한적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지역으로 느껴진다. 아치요 온누리교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있다. 여기서 며칠 전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전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젊은 영혼이 죽음을 선택했다. 또 작년에

는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왜 죽음을 선택할 용기는 있으면서 다시 한 번 힘내서 살아보려는 의지는 없는 것일까. 자살하는 사람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힘내서 살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나도 학생시절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바로 되돌아올 수 있었지만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다. 시간으로 치면 5분도 되지 않을 시간이었는데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탄이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이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일은 아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곧바로 헤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다음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다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좋은 자동차를 타도,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더라도 천국에 갈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볼품없

는 집에 살아도, 사람들로 부터 비하당해도, 자동차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가정이나 친구 관계에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자. 내 입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가 적은 일본에서 예배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희망 없이 사는 젊은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전하는 사명이 확실히 보인다. 그때부터 약하고 볼품없지만 나를 사용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진짜 희망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많다. 그러나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희망,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마 16:26).



이 아이들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가슴 뛰는 선물〉
임부웅 저 | 두란노 | 10,000원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전쟁고아가 많았다. 당시 해리 홀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한국 땅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따른 것이었다.

임부웅 목사는 홀트의 비전에 감명을 받고, 지난 45년 동안 꺼져 가는 작은 영혼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아동복지와 입양사업을 해왔다. 반평생을 그 일에 바쳤다.

임부웅 목사를 만난 아이들은 죽음의 기로에서 기적처럼 살아났고, 새로운 부모를 만났고, 가정의 평온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가슴 뛰는 선물〉은 임부웅 목사가 45년 동안 아이들을 섬기고, 헌신한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그는 양화대교에서 버려진 아이, 혼혈아동, 장애아동 등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냈다. 그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북한의 아이들도 섬겼다.

그의 나이가 벌써 72세다. 하지만 아직도 젊은이들보다 더 열정적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건강도 주신다.”

*책의 인세 수익금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 대기 아동들과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큰 위로를 선물할 것이다

〈현실과 믿음 사이〉
헬무트 틸리케 저, 윤종석 옮김 | 두란노 | 15,000원

헬무트 틸리케는 신학자이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다. 그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다. 질병에 걸려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기적 같이 치유를 경험한다. 그때의 경험이 그를 실존적이면서도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대가로 만들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슈투트가르트 예배당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설교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위로 받고, 힘을 얻었다.

당시 헬무트 틸리케의 설교는 전쟁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때 그가 한 설교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도 위로를 받았다. 그는 독일 대중이 깊이 사랑한 설교자 스펀전 목사 이후 최고의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이 책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를 선물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문을 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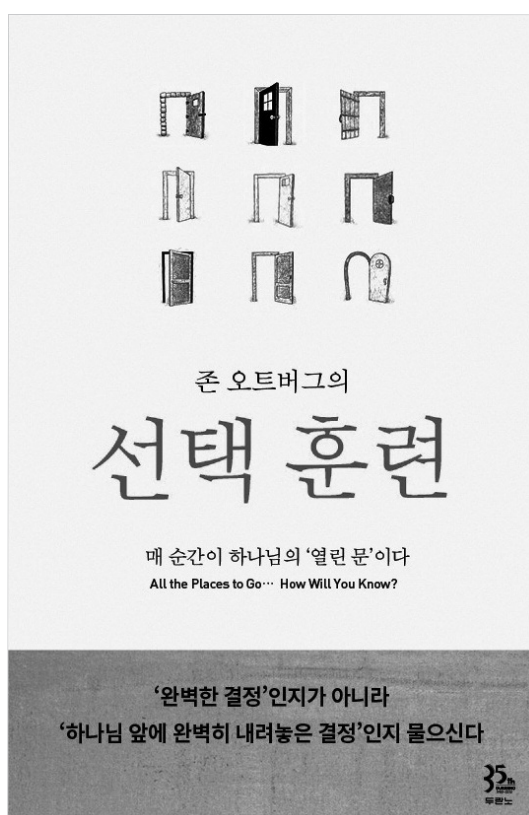
〈존 오트버그의 선택 훈련〉
존 오트버그 저, 정성목 옮김 | 두란노 | 14,000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번문인데 내가 원하는 문은 2번문이면 어떻게 하지?’

‘왜 하나님은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않으시는 걸까?’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좋고, 올바르고, 최선의 것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거대한 인생의 벽 앞에서 있는 이들에게 “문을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누구와 함께, 어떤 태도로 들어가는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면하고 있다.

〈존 오트버그의 선택 훈련〉은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필력으로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존 오트버그 목사의 신간이다. 이 책은 매사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작은 결정을 하는데에도 고민하느라 지나치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성령으로 기뻐하라〉
김은호 저 | 두란노 | 12,000원

절망적이고 어지러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때로는 삶이 평안해도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할 때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디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는 행복과 기쁨을 되돌아봐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향해야 한다. 바로 그때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15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주제로 한 설교를 엮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김은호 목사의 메시지를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